

어린이집에서의 아버지 참여

민 하 영(대구가톨릭대학교 조교수)

저출산의 문제가 주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 출산을 증가를 위한 사회적 정책이 사회 각 분야에서 제안되고 토론되고 있다. 2005년 여성가족부가 출범하면서 제안하고 있는 5대 가족 정책 비전 역시 그 예의 하나라 할 수 있다. '가족 모두가 평등하고 행복한 사회 실현'을 위해 새로운 가족문화 조성, 다양한 형태의 가족 지원 확대,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돌봄의 사회화 및 역할 분담, 그리고 가족정책인프라를 확충하고자 하는 여성가족부의 정책은 가정 안에서 자녀 양육이 최대한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출산을 격려하는 반면 자녀 양육의 어려움으로 인해 출산을 유예하거나 지연하거나 포기하려는 비율을 억제하려는 정책을 담고 있다 할 수 있다.

맞벌이 부부 및 취업모의 증가로 인한 자녀 양육 부담이 저출산의 문제와 무관하지 않음을 고려해 볼 때 자녀 양육의 주 책임자로 인식되고 있는 어머니의 자녀 양육 책임 분담은 분명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 중 하나일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자녀 양육에 대한 국가의 관심과 참여 계획은 어머니의 자녀 양육 책임을 분담하려는 사회적 의지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자녀 양육에 대한 국가의 관심과 참여 계획보다 현 상황에서 더욱 시급히 요구되는 것은 가정 내 아버지의 자녀 양육에 대한 관심과 참여라 할 수 있다. 아버지휴가제도(Papa Quota)와 같은 여성가족부의 가족 정책 계획이 가시화되기 이전에 현재 지금(here and now) 상황에서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자녀의 아버지이며 어머니의 동반자인 남편(아버지)의 자녀 양육 참여인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보육 시설인 어린이집에서 아버지 참여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자녀 양육에 대한 아버지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음을 제안한 이 논문은 아버지의 자녀 양육 참여가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현 시점에서 매우 시의 적절한 논문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자녀 양육에 대한 아버지 참여인식을 높이기 위한 실천적 부모 교육 장소로 어린이집이 활용될 수 있음을 제안하고 있는 이 논문은 보육 시설의 역할 기능 다변화를 모색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는 면에서 전망적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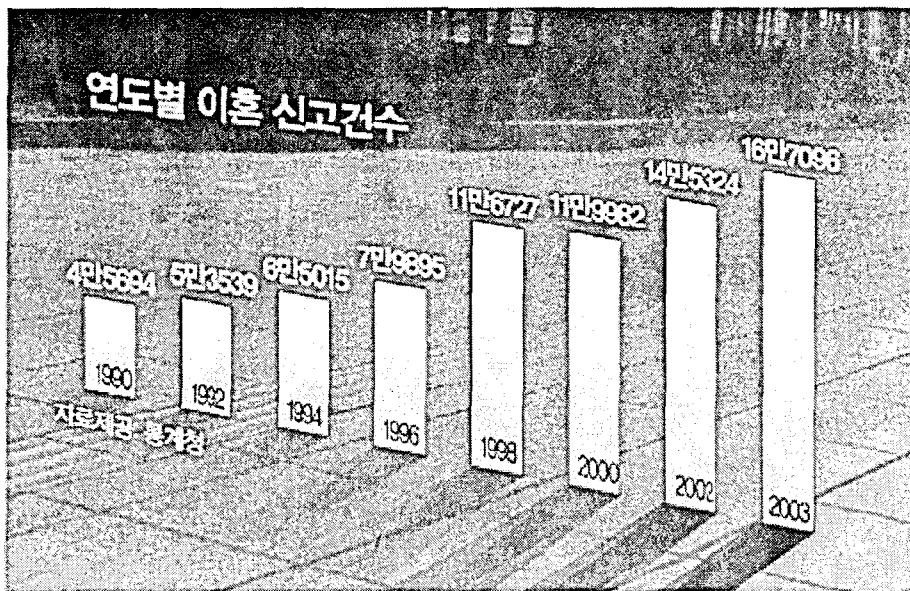
그러나 어린이집에서의 아버지 참여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고려해야 할 점은 우리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이혼률이 세계 1위라는 점이다. 이혼 여성의 대부분이 자신의 자녀와 함께 싱글맘 가족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생계 유지를 위해 6세 미만 자녀가 있는 싱글 맘 중 52.5%가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놀이방에 맡기고 있음(동아일보, 2005년 10월 10일)을 고려해 볼 때, 어린이집에서의 아버지 참여라는 프로그램은 아버지와 함께 생활하지 못하는 원아들의 상대적 상실감을 높일 수 있는 잠재적 위험성을 지닌다 할 수 있다. 부부와 그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을 정상 가정으

로 보는 기존의 가족 개념에서 벗어나, 가족 구조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현 사회적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아버지의 자녀 양육 참여’를 독립적으로 부각시키기 보다 ‘가족의 자녀 양육 참여 속에서 아버지의 자녀 양육 참여’가 격려되는 것은 어떨까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일상적인 활동에서의 아버지 참여 뿐 아니라 연간 계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아버지 참여에서 아버지가 원아의 머리핀을 제작하거나 아버지와 원아가 1박 2일 캠프를 하는 프로그램에 이르기 까지 활동 대상을 아버지로 국한하지 않고 가족원 누구나((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삼촌, 외삼촌, 이모, 고모 또는 종교적 차원에서의 대모, 대부 등등) 참여하도록 하면서 그 가운데 아버지의 참여 중요성이 자연스럽게 강조되어야 하지 않을까 제안해 본다.

이와 함께 생각해 보는 것은 가족원 참여를 통해 모인 원아들의 아버지들에게 아버지 없이 어머니와 생활하는 또는 부모의 가족원과 생활하는 원아들에게 “지역사회내 아버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줌으로써 부 부재로 생활하는 원아들에게 아버지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아버지 없이 생활하는 원아들에게 사회적으로 존재하는 아버지의 역할을 짧게나마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부 또는 모 역할에 대해 편협되지 않은 인식을 발달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사회적으로 강조되는 자녀 양육의 부부간 분담이 보육 시설에서 마련하는 각종 가족 프로그램을 통해 보다 빠르게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그렇게 될 때 보육 시설은 원아를 보호하고 교육하는 시설에서 머물지 않고 바람직한 사회 구성원을 교육시키는 사회 교육의 장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 보여진다.



<그림 1> 연도별 이혼 신고건수